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농협

**2025
APEC
INCHEON**
 국제 최대 경제포럼
세계 최대 비즈니스 허브
지속 가능한 스마트 마리도시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1347호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태영 “자구안 충실히행…부족시 TY홀딩스·SBS 주식도 담보로”

채권단 추가자구안 압박에 입장 선회…“미이행 논란으로 오해·혼란 사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워크 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한 자구노력과 관련,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윤 창업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권단의 지원만 바라지 않고, 저희가 해야 할 자구 노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계열사인 에코비트 등 주요 계열사 매각 또는 담보 제공을 글자로 한 기존 자구계획 이외에도 다른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해 태영건설에 투입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앞서 태영그룹은 지난 3일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태영건설 납입, 에코비트와 블루원, 평택사이로의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통한 지원 등 4 가지 자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락 TY홀딩스 부회장은 필요할 경우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대주주 지분을 모두 걸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



기자회견 마친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

라고 설명했다. 다만 SBS 지분 매각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태영 측은 그동안 SBS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해 방송법상 대기업 지분 제한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의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부회장은 “방송기업이라 일반 기업과 달리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는 법적 규제가 많아 어렵다”면서 “(담보 제공의 경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필요한 만큼, 전 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창업회장은 워크아웃 신청 후 자구계획 이행과 관련해 “일부 자구계획의 미이행”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으나, 다시 자금을 마련해 전액 태영건설에 더 투입했다”며 “오해와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천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을 밝혔다가 매각 자금 가운데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쓰면

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채권단은 반발했고,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태영그룹은 논란 끝에 전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을 추가로 태영건설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태영그룹이 이날 ‘부족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TY홀딩스는 물론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SBS 주식까지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채권단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윤 창업회장은 “태영건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선 저희 욕심이 과했던 탓이 크고, 더불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같은 요인 때문에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롤-오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창업회장은 “반드시 태영건설을 정상화해서 채권단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 모든 분들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에도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민재 기자

국방부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는 부처 간 협의 필요”

국방부는 북한의 잇단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육·해상 완충구역에서 훈련 재개를 선언하면서 9·19 남북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면 파기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의 완충구역 훈련재개 선언으로 9·19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DMZ 내 GP철수, JSA 비무장, 육·해상 완충구역 등 군사 긴장완화 조항들은 사실상 무력화했다.

그러나 6·1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등 협력사업은 진척이 없기는 하지만 이를 폐기하려면 관련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9·19 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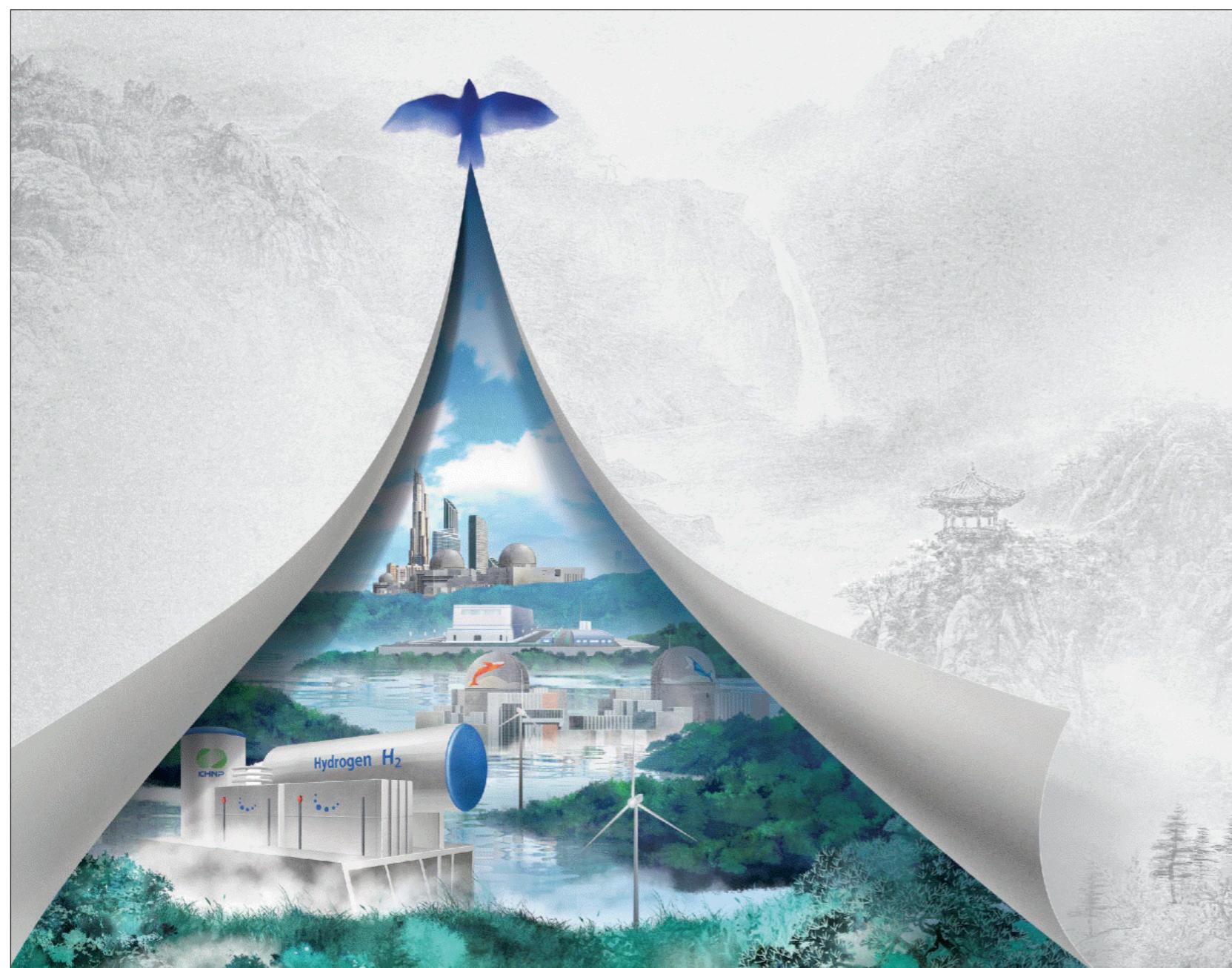
대통령이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킬 수 있지만, ‘전면 파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군 당국자는 “9·19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상 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여서 통일부의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통일부 등 부처와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전날 밝힌 대로 그동안 9·19 군사 합의에 따라 금지됐던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다.

/ 서종익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1400
-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Photo News



겨울방학 맞은 초등학생 다도체험

8일 오전 부산 동래구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에서 열린 초등학생 겨울방학 전통문화체험에서 학생들이 다도와 전통예절을 교육 받고 있다.

**봉준호·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12일 문화인 인권보호 법령 개정 등 요구 성명 발표



봉준호 감독

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는 오는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선균과 영화 ‘기생충’에서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이원태 감독, 가수 윤종신, 배우 최덕문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선균 사건 관련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이선균 배우

/ 한유경 기자

충TV처럼 못하나…尹대통령 “정책 홍보도 혁신 필요”

“좋은 정책 만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국민이 변화 체감하도록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기초단체 한 공무원의 ‘유튜브 시정 홍보’를 혼신 사례로 직접 거론하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를 제대로 알려 국민이 체감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홍보 마인드를 가져 달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

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책이 현

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의 사례까지 언급하며 중앙 차원의 정책 홍보를 독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도 “올해부터 국민들께 직접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시행된다”며 직접 정책 소개를 하기도 했다.

충북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는 서울시를 제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인 55만6천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충TV를 운영하는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은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10월 9급으로 임직한 지 7년여 만에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는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 김성규 기자



‘서이초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나지 않는 서이초…교사 고소한 학부모에 조희연 “선처” 호소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학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

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린 현직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 관련 서울시교육감 의견서(안산 단원경찰서 송부)’라는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이 교사는 경찰에서 ‘학교에서 사망한 경위가 묻히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학부모를

‘연필 사건’ 학부모,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무더기 고소

조 교육감은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온라인에 글을 올린) 교사와 누리꾼 26명을 무더기로 고소했고, 관련 교사가 조사받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서이초가 속한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직후 일련의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해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 보면서까지도 함께 갈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도 이번 고소 사건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복돼 가는 교육 공동체의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이초에서 세상을 떠난 교사는 평소 학부모의 민원 등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교직 사회의 공분이 커지고, 이는 대규모 교사 집회로 이어졌다.

그는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 보면서까지도 함께 갈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도 이번 고소 사건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복돼 가는 교육 공동체의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인의 사망 전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름을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해서 서이초의 아픔을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 한다”며 “나아가 경찰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 오현주 기자

‘탈당 예고’ 이낙연에 野 맹비난… “반명” 외에 무슨 명분있나”

친명계 “대체 왜 당에 침 뱉나”…우상호 “이재명 싫어서 나가면 성공 못 해”



인사하는 이준석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한 비난이 계파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집권 여당 대표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지도자인 이낙연은 “이전 대표는 어떤 계파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 전 대표와 경쟁했다 패한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이를 탈당 명분으로 삼은 점은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꽂길만 걸어온 분”이라며 “5선 중 4선을

호남에서 했고, 전남지사도 했다. 호남 끝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당 대표까지 한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그동안 함께한 당원과 지지자를 기득권으로 몰아붙이고 떠난다는데 무슨 명분과 가치를 추구하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탈당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것, 반명(반이재명) 외에 뭐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주 많이 잘못됐다. 오랜 세월 민주당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라며 “지지자와 국민으로부터 반항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이 총선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악담에 가까운 전망도 많았다. 한 친명계 의원은 “대체 왜 당에 침을 뱉느냐”라며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기반으로 입지를 쌓아 마지막으로 본인 정치를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SBS 유튜브 ‘정치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사람이 없고, 세력이 없고, 지지 기반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이 싫어서 나가면 성공 못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안에서 통합해보려 노력했지만 안 될 때도 많았고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누구 하나 무난히 갔던 분이 어디 있나”라며 “하지만 안 맞는다고 해서 당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조용우 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도 페이스북에 “머리 좋은 이낙연 전 총리가 끝내 ‘모지리’들 돋는 일을 하실 모양”이라며 “계파 정치에 찌든 민주당도 걱정이지만 그렇다고 나라 망치는 데 일조하겠다고요? 마음에 안 들고 누울 자리가 없어도 그건 아닌 듯하다”라고 적었다.

/ 최형재 기자

인천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The graphic features large numbers '1883' and '2001' at the top, with '2021' partially visible on the right. It is divided into three colored sections: yellow, blue, and pink. Each section contains a title and subtitle, with illustrations of people and landmarks.

- 제1개항**
제물포항 개항
개항창조도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견인
- 제2개항**
인천공항 개항
첨단국제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
- 제3개항**
제외동포청 개청
초일류 미래도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도시

Illustrations include a steamship, a modern train, and diverse international figures.

9·19 군사합의 휴지조각 전락…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라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서북도서부대 해상사격훈련 지휘

북, GP 시범철수·JSA 비무장화·해상 완충구역 등 연이어 위반 합참 “해상·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서 사격 등 정상 실시”

2018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군사합의로 과파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병사격 재개 등 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해왔다.

우리 군도 8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지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북한의 위반 행위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부 장관이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포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됐다. 아울러 남북은 DMZ 내 GP의 완전 철수를 목표로 각각 10개의 GP를 과파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한 채 장비와 인력을 철수시켰다.

이런 시험철수에 따라 북측 GP는 기준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 GP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도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해상 완충구역 내 포 및 미사일 사격, 우리측 GP에 풍격, 소형 무인기 남측 관할지역 침입 등 크고 작은 합의 위반 행위를 해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3천600여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본격화한 계기는 작년 11월 21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였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 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일시 효력정지를 11월 22일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군사합의로 과파된 GP에 감시소를 설치하고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으며, JSA 경계 병력을 무장시켰고, 군사합의로 금지된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해안포 포문 개방 횟수를 크게 늘렸다.

급기야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측도 북한군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시범철수 GP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JSA 경계 병력을 무장시켰고,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내 해안포 포구 덮개 개방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지난 5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서북도서에 있는 해병부대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을 재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 기동, 포병사격 등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중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공동 사업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손현수 기자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고발당해

부산에서 헝기 습격을 받은 뒤 서울 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 단체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철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다

가 헝기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소청과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라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라며 잇달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사제', '지역 공공의대' 등을 외치는 야당 대표가 정작 지역 병원을 뒤로한 채 서울행을 태웠다는 게 골자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

다"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

광주시의사회와 경남도의사회 등도 이 대표의 서울행을 특혜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은 그의 전원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수술의 난도도 높았다고 밝혔다.

수술을 접두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다친)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 오고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권인 흥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지하기 그지없다"고 밝히며 지나친 논란을 경계했다.

/ 배영성 기자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철도 지하화법도 처리 식용목적 개 도살, 최대 징역 3년…공포 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

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화평법·화관법도 법사위 문턱 넘어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법은 처리 보류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등할 수 있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등록·신고 기준을 완화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난임 극복 지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을 없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인천 중구·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 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가 보류됐다.

/ 신재일 기자

작품명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 학처입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분산발전 #전기차 충전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 솔루션 #Mobility #Platform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으로

신재생 에너지 직접 생산부터 전기차, 수소차 충전까지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SK에너지의
그린 학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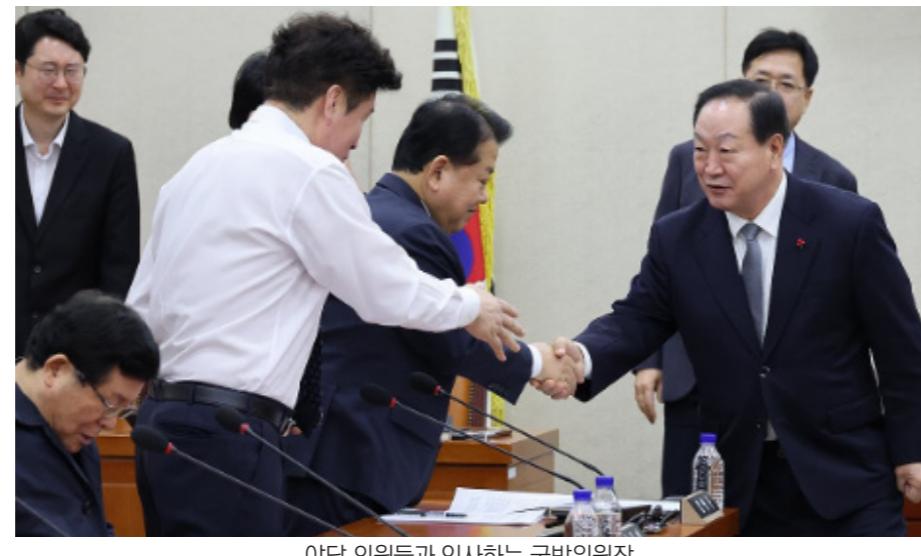
SK innovation SK geo centric SK on SK enmove SK incheon petrochem SK trading international SK ie technology SK eearthon

野, 국방위 단독 개의…‘독도 영토분쟁’ 교재 비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최근 국방부가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발간했다 전량 회수키로 한 사건을 두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열리면서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와 신 장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국방과 안보를 망칠 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대한 민국 안보에 최대 리스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 장관의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국방위원장

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로 인해 10년, 20년, 50년 후 일본이 이

송옥주 의원은 “신 장관의 뉴라이트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혁책을 할지 모른

다”며 “신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께서 이념 전쟁을 선포하고 한일 관계 재정립을 핑계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강제징용 은폐에 사실상 침묵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신교육 교재 논란은 예고되었던 참사”라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해당 교재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부각시켰다며 “나치 친위대, 김정은의 북한군처럼 국군을 개인의 친위대로 만들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발언하는 홍의표 원내대표

홍의표 “尹, 쌍특검 거부권 대국민 사과·철회 후 공표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의표 원내대표는 9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그리고 (거부권을) 철회한 이후 자체 없이 공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철회하고 공표한 바 있다”며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니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서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 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흥기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은 진실 은폐 비판과 정치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단 한

與 ‘김여사 리스크’ 관리 부심…중진회의서도 해법 요구 나와

중진들 “정무적 대응해야”, “대통령 회견서 마무리지어야”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총선용 꼼수”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으면서도, 총선을 앞둔 만큼 김 여사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는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과 함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재우 원내대표가 주재한 9일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제표결을 논의하며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3선 이상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해 “여론 동향이 안 좋고 정무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이나 특별 감찰관을 언급하고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여기에는 특검법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고가 명품백 수수 의혹, 김 여사 일

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이 여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적으로도 ‘김건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외부 출신인 김경을 비대위원은 전날 당내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공개 거론했다.

그는 “특검의 실체와 상관없는 김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지, 국민들의 반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라며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윤계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KBS 라

디오에서 “김 여사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나. 조금 자제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국민들 감정을 고려한 여려 추가적 행보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든 아니든, 부풀려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겠나. 결국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일정 부분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저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 박종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건전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건강한 정치후원금은 비온후 토양에서 올창한 숲을 이루듯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세법률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종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이준석 “서초동 사투리 용납못해”…이낙연 “양당 카르텔 깨야”



출판기념회에서 만난 이준석·이낙연

성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른 세력과 한강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힘과는 경계선이 놓여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한국의 힘은 과학기술인 인재 영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 데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에서 “국민이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이때 양향자 대표의 도전이 있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내는데 양 대표의 도전의식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지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신당을 창당하거나 창당을 준비 중인 ‘4인방’(이준석·이낙연·양향자·金태섭)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면서 주목받았다.

/ 최준용 기자

조은천 “이재명 답 없으면 ‘원칙과 상식’ 내일 탈당”

“민주당에 결단 요구했는데 답 못 들으면 방법 없다…빅텐트 만들어져야”

더불어민주당 비명(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조은천 의원은 10일까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답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며 “그 시간에 우리 요구에 답을 주지 않으면 (국회 기자회견 공간인)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끝까지 결단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답을 못 들으면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럼 탈당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이원우·김종민·윤영찬 의원 등 ‘원칙과 상식’ 4인방은 전날 오후 모여 자신들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과 상식’은 이 대표에게 ‘개발’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 지지자와 결별을 요구하는 한편,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구성 등을 요구해 왔다.

조 의원은 탈당 후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조 의원은 “(기호) 3번, 4번, 5번, 6번은 별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제3지대 세력이 연합해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국민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서윤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결심공판서 재판 혐의 부인

공직 제안받았다는 A씨 “고발한 것 후회 안 해”…내달 6일 선고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을 결코 제안한 적이 없다”고 재판 혐의를 부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315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선거 전까지 짧은 시간 단 두 차례 만난 A씨에게 공직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지난해 1월 열린 첫 공판에서부터 줄곧 유지한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홍 시장과 A씨,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씨 등도 모두 출석했다.

홍 시장은 “2022년 4월 창원시장 후보



홍남표 창원시장

9명이 4명으로 압축된 뒤 탈락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으며 당시 한 후보가 제 캠프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공단 이사장직을 제안해 단번에 거절한 적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

지고 역량조사 검증되지 않은 A씨에게 짧은 만남 속에서 공직을 약속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고향인 창원의 미래에 헌신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며 선거법을 어기면서까

지 이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며 “오히려 A씨가 선거 후 청년 특보로 시청에 올 수 없겠느냐고 부탁해 역량을 갖췄으면 당당히 공모에 응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홍 시장과 B씨가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허위 주장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힘들었지만, 고발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자는 바뀌어야 한다. (선거)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달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송진영 기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4호선 혜화역서 침묵시위하던 전장연 활동가 체포

서울 지하철역 역사에서 경찰의 퇴거 조치에 불응해 시위하던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8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대합실에서 시위하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이튿날 석방했다.

/ 체형석 기자

이씨 등은 이날 역사에서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전장연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출근길 침묵 시위를 펼쳤다. 경찰은 지난 5일에도 같은 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이튿날 석방했다.

/ 체형석 기자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혐수, 첫 재판서 “모르는 일”

혐의 부인하며 비공개 재판 요청…피해여성 측 “엄벌 구한다”



작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씨 혐수 A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 인가”라 물어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A씨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맞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 말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사건”이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라며 “증거조사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밝혀주면 비공개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온라인에 게시된 황씨의 사생활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도 참석했다.

그는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피해자는 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없는 만큼 신상에 관한 정보만 아니라면 공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데, 피해자로선 어떤 영상이 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 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작년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 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작년 5월부터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 김유정 기자

유흥업소 실장에 생일선물로 마약 준 의사…구속 연장



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다음주께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지 않고 B씨에게 마약을 줬고, 이 마약이 배우 이선균(48)씨 등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 이민웅 기자

Hello, Mirai!

우주 여행을 떠나고 로봇 친구를 사귀고
더 큰 세상을 만나는 미래

미래는 지금, KDB산업은행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민간 첫 무인 달착륙선 발사…美, 반세기만 표면탐사 시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우주비행사 착륙 앞두고 방사선량 등 조사

미국 기업의 탐사선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이라는 인류 우주 도전사의 새 이정표를 향해 지구를 떠났다.

우주기업 애스트로보티가 개발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은 8일(현지시간) 오전 2시 18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카나버럴 우주기지에서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LA)의 로켓 별컨 센타우어에 실려 발사됐다.

페레그린은 올해 2월 23일 달 앞면에 있는 폭풍의 바다 동북쪽의 용암지대 시누스 비스코시티스에 착륙할 예정이다.

이 탐사선의 착륙이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으로 기록된다.

그간 달에 안착한 유·무인 탐사선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미국, 소비에트연방(현 러시아), 중국, 인도가 국가 주도로 성공한 프로젝트였다.

아울러 미국으로서는 1972년 12월 마지막 유인 달 탐사선이었던 아폴로 17호 이후 51년여 만에 달 표면에 대한 탐사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가 있는 애스트로보티의 존 손턴 최고경영자(CEO)는 “아폴로 이후 처음이 될 미국의 달표면 귀환에 앞장선다는 건 크나큰 영광”이라며 말했다. 페레그린은 아폴로 우주선처럼 달까지 곧장 날아가지 않고 한 달 동안 달 궤도를 돌다가 서서히 고도를 낮춰 연착륙을 시도한다.

이 탐사선에는 달의 표면 구성과 방사능을 조사할 과학기구가 실렸다. 이는 조



민간 달 착륙선을 실고 우주로 향하는 별컨 센타우어 로켓

민간 있을 우주비행사들의 달 착륙을 앞두고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0년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개시해 올해 11월 유인 우주선을 쏘아올려 달 궤도 비행을 시도하고, 2025년이나 2026년께에는 우주비행사 2명을 실제로 달에 내려보낸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높이 1.9m의 페레그린 탐사선에는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이 개발한 신발 상자 크기의 소형 탐사 로봇, 실물 비트코인, 에베레스트산 바위 조각 등 다양한 화물이 실렸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우주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유해 일부다.

AP 통신과 AFP 통신은 우주 드라마 ‘스타트렉’ 시리즈의 원작자 진 로렌베리, 과학소설(SF)의 거장이자 미래학자인 아

서 C. 클라크 등 인사의 유해와 유전자가 페레그린에 실려 달에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페레그린 착륙선과 분리돼 태양 공전 궤도를 떠돌게 될 별컨 로켓의 상단부에도 별세한 스타트렉 출연진들의 유해와 함께 조지 워싱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등 미국 역대 대통령의 머리카락 샘플이 실렸다.

달을 신성시하는 미국 나바호 원주민은 인간의 유해를 달에 가져가는 계획에 항의했지만, 백악관과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등 관련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페레그린 착륙선에 실린 화물들과 관련해 애스트로보티가 받은 요금은 1kg당 수백달러에서 120만 달러(약 15억8천만 원)까지 다양하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손던 CEO는 순익분기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요금이라면서도 첫 번째 비행에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면 “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이 이것에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탐사선의 달 착륙은 고난도 작업이다. 달에 대기가 존재하지 않아 낙하산을 쓸 수 없는 까닭에 연착륙은 역주진에 의존한다. 여태 성공한 국가가 미국과 소련, 중국, 인도 등 4개에 불과할 정도다. AFP 통사는 역대 시도의 거의 절반가량이 추락으로 끝났다고 짚었다.

최근 민간의 달 착륙선 계획은 달 탐사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사는 ‘민간 달 탐재체 수송 서비스’(CLPS)의 일환으로 애스트로보티가 페레그린 착륙선으로 달에 나사 장비 등을 내려놓는 대가로 1억800만 달러(약 1천400억원)를 지불했다.

나사는 다음달 달 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인 미국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와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쏘아올릴 ‘노바-C’ 달 착륙선은 페레그린과 달리 달로 직행하는 1주일짜리 경로를 택할 예정이어서 두 착륙선은 며칠 혹은 몇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연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사는 ULA의 별컨 로켓의 첫 데뷔이기도 했다.

아틀라스V 로켓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전장 61m의 이 로켓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이 제공한 메인 엔진이 탑재됐다. / 성동수 기자



기시다 일본 총리, 자민당 비자금 사건 긴급 회견

일본 지역 의원 줄줄이 체포·입건되나 자민당 ‘비자금 동요’ 확산

도쿄지검은 이케다 의원 사무소 관계자들이 의원 지시에 따라 수사받기 전에 비자금 관련 기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이케다 의원이 전격적으로 체포되면서

비자금 규모 4천만엔(약 3억6천500만원)이 입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베파에서는 이케다 의원 외에

오노 야스타다 의원과 다니가와 야이치 의원이 비자금으로 4천만엔 이상을 쟁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지검은 두 의원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에 ‘정치쇄신본부’를 당내에 설치해 정치자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지만, 파벌 소속 여부 등에 따라 의원 간 견해차가 커서 구체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야당이 이달 말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휴일에 체포했다고 예고한 점도 자민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성윤 기자

中지도부, 잇단 軍 비리에 기강 다잡기…“내부비판 강화하라”

군 일선 조직에 ‘자아비판·상호비판’ 통지 하달…해방군보 “장병들 여전히 불법 행위”



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해방군보는 “작은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해야 한다”며 기층 당조직은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문제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지도부가 일선에 이같은 통지를 하달한 것은 최근 로켓군을 비롯한 군 장성들의 잇단 부패 사건이 잇따르는 것으로 볼 때 군대 내의 자정 기능이 상실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상명하복 문화의 군의 특성상 내부 고발 등이 쉽지 않다 보니 작은 부패와 비리가 대형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 이영찬 기자

내 개인연금, 글로벌 자산관리로 이전하자!

앱으로 간단히 개인연금 이전하고
관리는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랩어카운트로!
글로벌 연금 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가장 쉬운 방법!
미래에셋증권 앱으로 연금계좌 개설하시고,
지금 바로 이전하세요!

트럼프, 아이오와 경선 앞두고 상승세 헤일리 본격 견제

광고로 집중공격 개시…트럼프 “헤일리는 세계주의자” 비난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의 첫 투표까지 열흘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공격의 포문을 ‘추격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집중하고 있다.

그간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끌어내리는 데 주력했던 트럼프 캠프에서 최근 상승세인 헤일리를 경선의 마지막 걸림돌로 보고 표적을 옮겨야 한다는 시각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7일(이하 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 슈퍼팩(정치자금 기부단체)은 2번째 경선 지역인 뉴햄프셔주에서 지난달 중순 헤일리 공격 광고를 처음 시작, 500만 달러(약 65억8천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트럼프 캠프도 지난주에 헤일리가 국경 장벽 설치를 반대했다고 비난하는 광고를 뉴햄프셔주에서 방영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측은 반면 드샌티스를 공격하는 광고는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본인도 헤일리에 대한 비난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5일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헤일리가 국경 개방 지지자, 월가 등 기득권 기부자들에 의해 휘둘리는 ‘세계주의자’(globalist)라고 공격하면서 “그는 세계를 좋아한다. 나는 ‘미국 제일’(America first)을 좋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일에는 헤일리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자신에게 감히 맞섰다며 “나기는 나를 팔아먹은 것처럼 당신들을 팔아먹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캠프는 또 그간 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던 ‘죽음의 키스’라는 제목의 드샌티스 공격 이메일의 표적을 지난달 말부터 헤일리로 바꿨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드샌티스의 지지율이 어디서나 한 자릿수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이제 헤일리에 집중할 차례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증권업계 최초 개인연금 랩어카운트
미래에셋증권의 본사 전문 운용 인력에 의해 운용되는 투자 일임서비스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및 침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은 위탁매매 수수료와 투자수수료는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은 고객님이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584호 (2023.05.03~2024.05.02)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그룹

새해 아침에 쓰는 편지새해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어떤 소원을 비셨나요?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그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우리 가족 많이 웃게 해주세요”“우리 민서 취직하게 해주세요”그래서 우리금융그룹도우리를 위해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우리 청년들, 사장님들이 더 자주 웃게 해주세요”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가 있다

LG전자, 3년 연속 '최다 매출'…가전 30조·전장 10조 돌파

작년 매출 84.3조·영업익 3.5조…“B2B 성장 등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 LG전자[066570]가 지난해 수요 회복 지연과 시장 경쟁 심화에도 3년 연속 최다 매출액을 경신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3조5천485억원으로 전년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다만 매출은 84조2천8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작년에 이어 역대 최다 매출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매출은 주력 사업의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유지한 가운데 B2B(기업간거래) 사업 성장이 더해지면서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

지난 3년간 LG전자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3%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적에 대해 LG전자는 “수요 감소에 대응해 시장 변곡점을 조기에 포착, B2B 사업의 고성장을 이뤄내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노력을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품 중심 사업 구조를 콘텐츠·서비스 등으로 다변화하는 사업 모델 혁신 또한 견조한 수익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이날 사업본부별 세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연매출 기준으로 생활가전 사업을 하는 H&A사업본부는 30조원, 전장(자동차 전기·전자 장비) 사업을 하는 VS사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수요 회복 지연에 4분기는 수익성 하락…영업익 전망치 하회

업본부는 10조원을 각각 돌파했을 것으로 LG전자 측은 예상했다.

생활가전 사업은 수요 양극화에 대응해 프리미엄 리더십을 공고히 하면서도 주요 제품의 볼륨존(소비 수요가 가장 큰 영역) 라인업을 확대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냉난방공조, 부품, 벨트인 등 B2B 확대도 성장에 기여했다.

LG전자는 올해 기본 양적인 제품·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준비를 위해 소비자직접판매(D2C), 구독 등 사업방식 변화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고성장세를 이어온 ‘미래 머거리’ 전장 사업은 출범 10년 만에 연매출 10조원 시대를 열며 주력 사업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는 LG전자 전장 생산사업장

의 평균 가동률이 100%를 넘기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외형 성장에 더불어 모빌리티 트렌드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역량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TV 사업을 하는 HE사업본부는 유럽 등 주력 시장 수요 감소에 맞아 줄어드는 와중에도 스마트TV 플랫폼 웹(web)OS 콘텐츠·서비스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거듭했다.

B2B 사업을 이끄는 비즈니스솔루션(BS) 사업본부는 사이니지, 전기차 충전, 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의 조기 주력 사업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천125억원으로 ‘어닝 쇼크’(실적충격)를 낸 전년 동기보다 350.9% 늘었다.

다만 가전·TV 수요 회복 지연과 마케팅 비용 증가 등에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는 68.6%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4천938억원을 36.7% 하회했다.

매출은 23조1천56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 늘고, 전 분기보다 11.8% 증가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작년 4분기(21조 8천575억원)를 제치고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결 자회사인 LG이노텍을 제외한 별도 실적 기준으로는 LG전자가 작년 4분기에 적자 또는 순익분기점(BEP) 수준 영업이익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증권가에 서는 진단한다.

노근장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LG전자는 항상 4분기에 연말 재고조정을 위해 마케팅 비용을 대거 집행해 H&A 및 HE사업본부의 수익성은 직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며 “작년 4분기의 경우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수요 부진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핵심 성장 동력인 VS사업본부 수익성은 전기차 수요 위축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이달 말 실적설명회에서 작년 4분기 및 연간 연결 기준 순이익과 사업본부별 실적을 발표한다.

/ 김민호 기자



“화훼농가 살려달라”…경남·부산 생산자들 수입꽃 해결책 요구

국산 화훼 폐기 시위, 국회·농림축산식품부 항의 방문 예고

판했다.

생산자들은 “외국산 장미 수입은 10년 전 대비 40배나 많은데 애화도르는 수출 절화 중 장미가 75%를 차지한다”며 “카네이션 농가는 과도한 수입 증가로 사실상 폐농 수준이며 국화 농가도 수입 증가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화훼생산자 연합회는 8일 경남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애화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 협정(SECA) 체결로 화훼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SECA 국회 비준 반대와 화훼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화훼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화훼농가와 밀접한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 이어 애화도르까지 협상을 타결하고 무분별한 꽃 수입을 예고하는 등 대한민국 화훼농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

/ 강동주 기자

신세계-쿠팡, 온라인 럭셔리 패션 시장서 격돌

SSG닷컴, ‘네파포르테’ 브랜드관 개설…쿠팡 파페치에 ‘맞불’

SSG.COM X NET-A-PORTER

네파포르테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를 통해 네파포르테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독점적으로 전개하는 컬렉션부터 국내 미발매 신상품 또는 한정판 컬렉션까지 20만여종의 상품을 국내에 소개한다.

SSG닷컴은 앞으로 남성 럭셔리에 특화된 ‘미스터포터’ 등 육스 네파포르테 그룹 산하 다른 플랫폼 브랜드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SSG닷컴이 글로벌 럭셔리 플랫폼을 유치함으로써 명품군에서도 쿠팡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지난해 12월 5억달러(약 6천500억원)를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럭셔리 패션 플랫폼인 파페치(Farfetch)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를 기반으로 명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쿠팡은 지난해 7월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인 ‘로켓럭셔리’를 오픈하고 명품 화장품의 로켓 배송을 시작하는 등 명품으로의 카테고리 확장 전략에 속도를 내왔다.

온라인 럭셔리 시장은 성장 속도가 더뎌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통합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 명품 시장 규모는 21조9천900억원(전망치)으로 전년(19조6천767억원)보다 11.6% 커졌다.

오는 2027년에는 27조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흥민자 기자

소비자단체 “파리바게뜨·뚜레쥬르 크림빵 가격인상 과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국내 굴지의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체가 원유·우유를 주재료로 하는 크림빵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시내 파리바게뜨 매장의 ‘후레쉬 크림빵’ 가격은 1천7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천400원)에 비해 21.4% 상승했다.

파리바게뜨의 ‘달콤한 연유바게트’는 3천100원에서 3천400원으로 9.7%, 뚜레쥬르의 슈크림빵은 1천700원에서 1천900원으로 11.8% 각각 올랐다.

이는 두 업체가 지난해 발표한 평균 빵 가격 인상률 6~9%대

를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 원유·우유 가격 인상으로 빵을 비롯한 2차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크림빵 가격이 유난히 많이 뛴 셈이다.

협의회는 두 업체에서 판매하는 크림빵에 원유 또는 우유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함량 공시를 하지 않아 가격 상승률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비춰 식품 표시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충분히 종족시켜주고 있는지 심각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양희진 기자

**이렇게 똑똑한 금융
이렇게 똑똑한 금융
이렇게 똑똑한 금융**

**이토록 트렌디한 그룹
이토록 트렌디한 그룹
이토록 트렌디한 그룹**

**더나은 내일
더나은 내일
더나은 내일**

DGB금융지주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DGB금융지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청년의 꿈 하나증권이 응원합니다

내일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증권이 '청년케어'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나증권 '청년케어'

하나증권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약 20만명의 청년 중에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종합검진 수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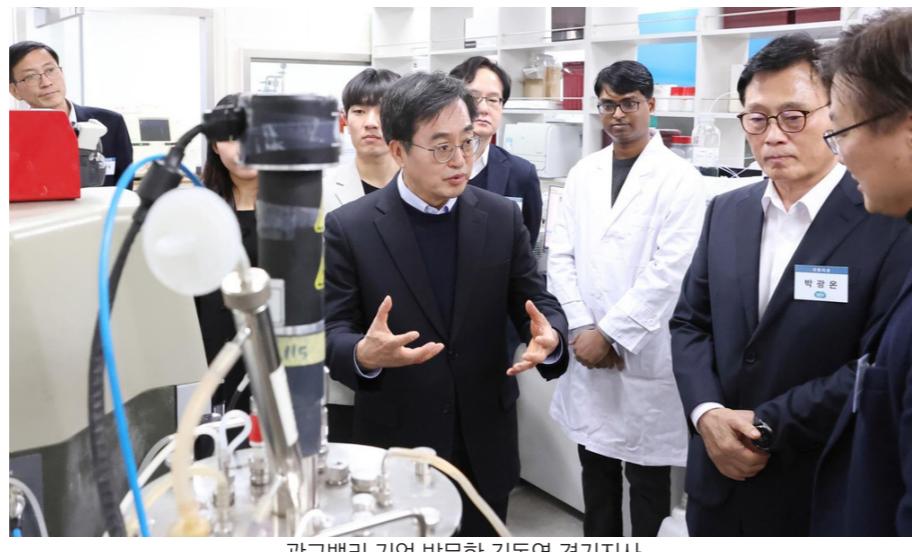
경기도 광교 바이오클러스터 본격화…김동연 “국내 최고 단지로”

경기도는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옛 바이오장기연구센터 부지를 개발해 경기도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고급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연간 500명), 바이오스타트업 보육(연간 15개 사내외), 도유재산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광교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일대 옛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 부지 2만5천 287㎡를 활용해 추진된다.

도유 재산인 해당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다.

GH 주진안을 보면, 사업비 4천325억원(추산)을 투입해 지상 16층, 전체면적 15만2천㎡ 규모의 업무시설, 주거시설(오피스텔·기숙사), 균린생활시설을 조성해 바



광교밸리 기업 방문한 김동연 경기지사

이오 기업 유치와 스타트업·전문인력 양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축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GH),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도의회), 건축 인허가(수원시) 등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용적률 상향, 오피스텔·기숙사 건축용도 추가 등 도시계획

리 변경과 관련해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날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광교테크노밸리 미래 비전’을 보고하고 기업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부터 광교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구상을 했는데 그 꿈이 현실에 가까워진 것 같다”며 “광교테크노밸리는 5곳을 나눠 진행되는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묶는 거점으로 바이오스타트업이 둑지를 틀 수 있게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8년 준공된 첨단산업단지인 광교테크노밸리에는 바이오·IT·나노 관련 기업 196개 사가 입주해 있다. / 박민준 기자



용인경전철 역사 모습

용인경전철 개통 11년 만에 누적 승객

1억명 돌파…하루 3만여명

경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이 개통 11년여 만인 지난 5일부로 누적 승객 1억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당시 하루평균 승객이 8천747명에 불과한 정도로 이용률이 낮았으나 이듬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 등으로 이용자

가 늘면서 2년여 만에 하루 평균 승객이 2만3천명을 넘었다.

시는 이번 서명운동이 의대 신설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모든 국민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30만명 이상 모인 주민의 간절함을 정부에 잘 전달해 포스텍 의대를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노건우 기자

림지구 등 역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는 경전철 이용 확대를 위해 관내 32개 버스 노선을 경전철 역사를 경유하도록 조정했고, 용인대와 강남대 등 인근 대학과는 셔틀버스와 연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원성을 샤딩 용인경전철이 지난 11년 간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앞으로도 110만 시민의 발이 되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완전 무인 자동 운전 방식으로 가동되는 경량전철로, 총 30량이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기흥역에서 전대·에버랜드역까지 총 15개 정거장(18.143km)을 오간다. 차량 1대당 정원은 133명이다. / 임희성 기자

포항공대 의대 신설 촉구 서명운동 참가자 30만명 돌파



경북 포항시가 포항공대(포스텍) 의대 신설을 위해 시작한 서명운동이 참가자 30만명을 넘어서며 마무리됐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포항공대 의대 신설 서명운동에 애초 목표인 20만명을 초과한 30만5천803명이 참여했다.

시는 서명운동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학교, 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곳을 대상으로 운동을 진행했다.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KTX 포항역,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서명 부스를 설

치해 포항공대 의대 신설 당위성을 알리고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각종 연말 행사에서도 결의 퍼포먼스와 서명운동 참여가 이어졌다. 재경·재대구 포항향우회를 비롯해 경주, 울진, 영덕, 울릉 등 도내 시·군 주민도 적극 동참했다.

시는 이번 서명운동이 의대 신설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모든 국민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30만명 이상 모인 주민의 간절함을 정부에 잘 전달해 포스텍 의대를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노건우 기자

노조 전임자 외청 발령에 충돌…원공노 “탄압” vs 원주시 “순환”

“다면평가 폐지·비서실 인력 확대 반대 목소리 내자 보복…인사 거부”



노조 탄압 주장하는 원공노

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조 전임 지위에 대한 교묘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대표해 그 목소리를 구조화하고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것은 노조 본연의 일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원주시장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원주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통상적인 순환보직 인사발령”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사업소 결원 1명은 오는 9일 자로 즉시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고, 전보 발령인 외청은 3분 거리”라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인사 조치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면 공무원 노조 전임은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시행됐으나 세부 규정이

원주시 “통상적인 순환 보직 인사…9일 자로 인력 충원, 3분 거리 불과”

들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주시는 인력을 보충할 계획인 만큼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인사 조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공노는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복성 인사 탄압을 받았으며, 노조 탄압 인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회견문에서 “노조 전임 인력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 시장도 시 집행부를 통해 노조 전임 활동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원 외 인력으로 본청 내부서에 배치된 노조 전임자를 퇴직자에

대한 충원 없이 외청 사업소로 발령 낸 것은 노조 전임자 흔들기기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조 탄압 주장의 근거로 원공노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12월 말 비서실 확대(10명에서 15명으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낸 것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원공노는 “다면 평가와 비서실 확대 문제는 시청 직원들의 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기에 노동자의 결사인 노조

/ 최형민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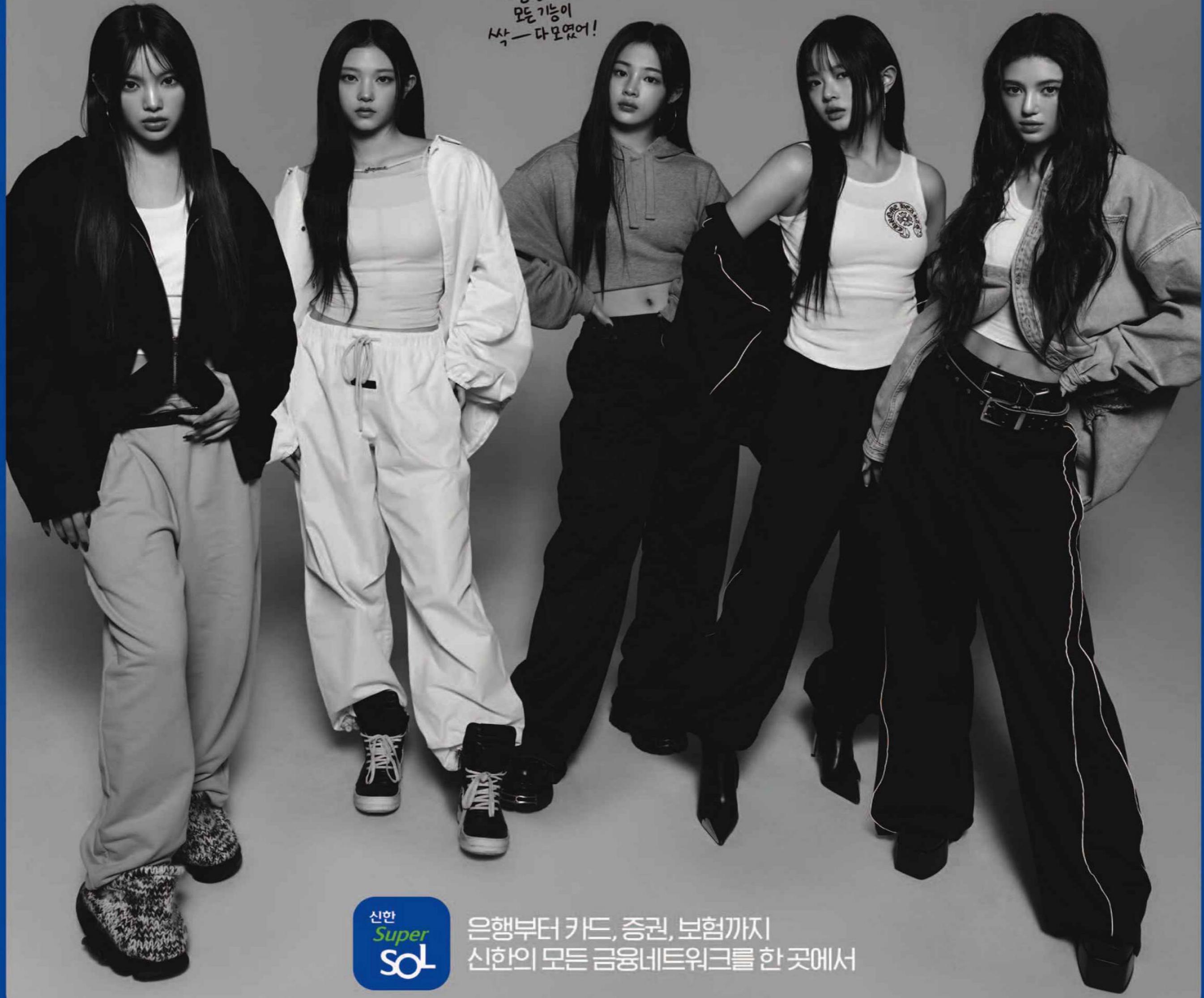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금융으로 세상을 ● 이롭게



금융을 새롭게 신한이 한다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이제 슈퍼 SOL 하나로 끝왔다가 빠 할 필요 없이
한번에
진짜 다 돼?나를 중심으로
모든 가능이
싹—다 모였어!슈퍼하게 쉽고
슈퍼하게 빨라서
이것만 쓰면 될까?꼭 필요한
기능만 어제처럼
모여들까?은행부터 카드, 증권, 보험까지
신한의 모든 금융네트워크를 한 곳에서

박완수 경남지사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으로 새 전환점”

마산자유무역지역 새해 첫 현장방문 “첨단·디지털산업 중심 육성”

박완수 경남지사가 8일 2024년 새해 첫 현장 방문 대상지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찾아 입주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정영식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회장(범한퓨얼셀 대표) 등 입주 기업인을 중심으로 25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 수출 전진기지였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새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마산해양신도시에 들어설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은 첨단·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정부가 1970년 1월 지정한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 투



마산자유무역지역 방문한 박완수 경남지사(가운데)

자지구다. 지정 50년을 넘었지만, 지금도 여개 업체가 6천여명을 고용할 정도로 지역 경제 비중이 크다.

수출액은 연간 10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 개념이 전기전자·정밀기기 업종을 중심으로 130여개 업체가 6천여명을 고용할 정도로 지역 경제 비중이 크다.

수출액은 연간 10억달러에 이른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거점단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남도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특례 규정을 추가한 자유무역지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마산자유무역지역도 산단 고도화,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또 첨단기업 유치, 디지털 산업 육성기반 조성, 편의시설·문화시설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산업부 지정 고시 절차를 남겨둔 마산해양신도시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은 비제조업 중심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백도영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2023년 하반기 직무수행 평가 특·광역시 1위

한국갤럽,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역대 부산시장 중 최고 기록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장 가운데 긍정 평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유권자 2만1천30명(부산 1천374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은 긍정 평

가 56%, 부정 평가 28%를 각각 받았다.

박 시장은 긍정 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는 가장 낮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긍정 평가가 56%였지만 부정 평가에서는 30%로 박 시장보다 2%포인트 높았다.

한국갤럽이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역대 부산시장 중에서 박 시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 정치 성향에 따른 평가를 보면

중도층에서 49%가 박 시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를 했고, 진보층도 3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박 시장의 리더십과 정책에 대해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16개 시도지사(세종 제외)로 확대하면 이철우 경북지사 62%, 김영록 전남지사 60%, 김동연 경기지사 58%에 이어 박 부산시장이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7.9%포인트다. 전화 조사원 인터뷰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9%다.

/ 이진성 기자



해맞이 인파로 붐비는 간절곶

‘체류형 관광객 늘린다’

울주군,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울산시 울주군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주군의 매력적인 관광명

소를 홍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시행된다.

지원 유형은 당일 관광, 숙박 관광,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버스 임차료, 울주관광택시 상품 운용, 프랜드가이드 상품 운용, 울주 특화 숙박상품 운용 흥보비 지원 등 총 6개로 분류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체로, 유형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당일 관광은 내·외국인 1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2곳을 방문하고 지역내에서 한번 식사하면 1명당 1만원씩 지급한다.

숙박 관광은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4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울주군 내 숙박, 2식, 관광지 3곳 방문 등 조건을 충족하면 1명당 3만원을 지원한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버스 임차료는 영남알프스 산 1곳과 지역 관광지 1곳 방문, 지역 식당 1식 등 조건을 충족하면 버스 1대당 30만원씩(최대 2대)을 지급한다.

희망 업체는 여행 7일 전까지 울주군 관광과에 사전 계획서와 관광 일정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참가자 명단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여행하기 좋은 도시 울주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권정숙 기자

강기정 시장·니콜라 부리오 감독, 광주비엔날레 ‘의기투합’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시청 접견실에서 니콜라 부리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 감독을 만나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창설 30주년을 맞는 올해 비엔날레를 통해 세계 속의 광주비엔날레로 재도약할 것”이라며 “감독이 꿈꾸는, 관객·작가·기획자가 일치하는 ‘관계의 미학’을 증명하는 전시로 비엔날레가 시민의 것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관소리는 지역 특색이 가득 담긴 소재를 활용하는 만큼 세계와의 소통이 더욱 기대된다”며 “호남은 소리, 미술, 스토리 작가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광주와 호남의 저력, 문화 매력을 발산할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부리오 감독은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기에 기여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광주정신은 저항의 정신이



비엔날레 성공 개최 한마음

고 주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주제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광주정신”이라고 말했다.

부리오 감독의 방한은 이번이 세 번째로 준비 상황 점검 등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

부터 12월 1일까지 관소리를 매개로 동시에 공간과 인류에 대해 탐색한다.

부리오 감독이 이끄는 본전시뿐만 아니라 2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국가관을 통해 각국의 다양한 전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 오정윤 기자

배회감지기 덕분에 치매 노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보건소가 보급한 스마트 기기 덕분에 치매 노인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8일 충남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에 따르면 예산읍에 사는 70대 치매 노인 전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5시께 운동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보호자는 보건소에서 받은 소형 배회

감지기(스마트 태그)로 위치를 확인, 전씨가 집에서 3.4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지만, 오후 7시 30분께 가족이 전씨를 찾아 무사히 집으로 데려왔다.

전씨의 보호자들은 “배회감지기 덕분에 아버지를 빨리 찾을 수 있었다”며 보건소에 연락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보건소에서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무선 화재 감지기가 치매 노인을 화재 위험에서 구하기도 했다.

당시 70대 치매 노인 이모씨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다.

냄비가 타면서 연기가 발생했고, 화재감지기 알람이 울리면서 가스가 차단돼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 한정희 기자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공유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 가치 만들기,
LG가 함께하겠습니다.

LG



마침내 보험, 여성의 라이프 속으로 **(무)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여성이라는 멋진 삶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성의 라이프도 세심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여성의 모든 순간을 함께합니다
(무)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도, 면책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 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 손해 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 협회 심의 필 제102194호 (2023.07.13)

쉽고 편하게 바로 상담받기 **1833-7667**

 **한화손해보험**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환영 영상 공개…감독 “내가 찾던 선수”

이정후 “한국 커리어는 뒤로하고 새롭게”…이종범 “성공할 것”

미국프로야구(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외야수 이정후(25)를 환영하는 영상을 8일(한국시간)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파크를 찾은 이정후의 모습이 담겼다. 지난 해 12월 16일 입단식 당일날 찍은 영상으로 보인다. 이정후가 입단식에 참석하지 못한 밤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과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정후가 통역을 통해 “김하성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 경기 뛰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멜빈 감독은 “이정후야말로 내가 찾던 선수”라면서 ‘바람의 순자’를 외치기도 했다.

멜빈 감독은 2022년부터 두 시즌 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지휘봉을 잡아 김하성



의 메이저리그 적응을 성공적으로 도왔다.

이정후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을 때 멜빈 감독은 “이미 그런 선수다. 입단을 축하한다. 우리도 너무 신난다”고

화답했다.

이정후는 이어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커리어는 이제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좋은 구단에 온 만큼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홈구장을 둘러보며 “진짜 뷔티풀하다”고 감탄한 이정후는 “항구 도시에 살아보고 싶었고, 어렸을 때부터 역사가 깊은 팀에서 뛰고 싶었다. 운 좋게 입단해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입단식에 함께한 아버지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와 어머니 정연희 씨도 영상에 출연했다.

이 전 코치는 “아빠가 레전드라는 큰 부담을 스스로 이겨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까지 입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생각과 마인드 모두 저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정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구장에 적응을 잘 해 많은 샌프란시스코 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면 좋겠다”고 바랐다.

/ 최준용 기자



윤이나, KLPGA 징계 감면

2024시즌 국내 개막전부터 출전 가능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다가 오구 플레이 신고를 늦게 해 징계를 받았던 윤이나는 KLPGA 투어 2024시즌 국내 개막전부터 출전할 수 있게 됐다.

KLPGA는 8일 서울 강남구 협회 사무국에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윤이나에게 내렸던 3년 출전 금지 징계를 1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KLPGA는 “스폰서를 비롯한 골프 관계자와 팬들, 전체 회원 등의 입장과 대한골프협회의 징계 감경 등을 고려했다”고 징계 기간을 줄인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가 징계 결정에 순응했고, 징계 후 약 5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했으며 미국 미니 투어에서 받은 상금을 전액 기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을 고려해 징계 감면을 KLPGA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다.

또 윤이나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무료 골프 강의를 하고, 앞으로 협회 발전에 기여하며 다른 선수와 일반인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이 징계 감면의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4월에 열릴 예정인 2024시즌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부터 출전할 수 있게 됐다. 3월에 예정된 두 차례 외국 대회는 윤이나의 징계 기간 만료 이전에 열리기 때문에 윤이나가 뛸 수 없다.

윤이나는 2022년 6월 열린 한국여자오픈 당시 골프 규칙을 위반해 대한골프협회와 KLPGA로부터 모두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1라운드 15번 홀 티샷이 러프에 빠졌고, 러프에서 찾은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기를 계속 진행한 것이다. 이 대회에서 첫 탈락한 윤이나는 대회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에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신고했고 그해 8월 대한골프협회, 9월 KLPGA 징계가 이어졌다.

KLPGA 신인이던 윤이나는 오구 플레이 이후 자진 신고 전까지 대회 출전을 강행, 2022년 7월 KLPGA 투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첫 승을 따내며 일약 스타 선수로 발돋움했다.

징계가 나오기 전까지 KLPGA 투어 신인상 포인트 2위, 비거리 1위를 달렸으나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시즌까지 1년 반 정도 자숙의 기간을 보내야 했다.

대한골프협회 징계는 지난해 9월 3년

에서 1년 6개월로 감경돼 올해 2월 18일에 만료된다. 또 이번 KLPGA의 징계 조치로 윤이나는 4월로 예정된 KLPGA 투어 2024시즌 국내 개막전부터 팬들과 다시 만나게 됐다.

KLPGA는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윤이나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은 내지 못하고 올해 1월 이사회로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일부에서는 윤이나에 대한 징계를 줄인 것은 골프 종목 특유의 스포츠맨십을 훼손한 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또 반대로 ‘1년 6개월 징계도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 이진영 기자

‘이강인, 박지성 후계자 될까’…AFC 아시안컵 영스타 5명에 선정

음바페·뎀벨레와 PSG 핵심 멤버로 평가, 일본 구보도 주목할 선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빛낼 차세대 스타로 선정됐다.

AFC는 7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과 일본의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 등 5명을 카타르 아시안컵을 빛낼 ‘베스트 영스타’로 소개했다.

AFC는 2001년생인 이강인에 대해 “박지성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라며 활약을 기대했다.

AFC는 “지난해 여름 프랑스 최강 클럽 PSG의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이 팀에 빼놓을 수 없었다.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등과 더불어 PSG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다”고 이강인을 치켜세웠다.

이어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열린 툴루즈와의 2023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 결승전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 결승포로 팀의 우승을 견인한 이강인의 활약을 조명하며 프랑스 무대 데뷔 시즌을 알차게 보내고 있다고 호평했다.

구보는 2019 AFC 아시안컵 결승에서 자국의 준우승을 벤치에서 지켜봤다.

AFC는 “이강인이 지난해 A매치에서는 4골 3도움을 기록해 아시안컵을 앞두고 좋은 평가를 보였다”며 “64년 동안 아시안컵 무관에 그친 한국의 한을 풀 수 있을까”라고 흥미로워하기도 했다.

이강인의 친구이자 동갑내기 라이벌인 일본 대표팀의 구보도 관심을 모았다.

마요르카(스페인) 시절 한솥밥을 먹은 둘은 각각 한국과 일본 축구의 미래로 손꼽힌다.

AFC는 “구보는 통산 5번째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일본 대표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는 구보는 지난 시즌 프리메라리가 9골 7도움으로 만개했고, 올 시즌도 벌써 6골 3도움을 올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달성을 눈앞에 뒀다.

구보는 2019 AFC 아시안컵 결승에서 자국의 준우승을 벤치에서 지켜봤다.

이번 대회 활약을 다짐했던 구보지만

개막을 불과 일주일 남기고 왼쪽 허벅지 부상 소식을 전했다. 구보는 일본 대표팀에 합류해 부상을 치료할 예정이다.

이라크의 2004년생 공격수 알리 자심(알쿠와 알자위야)은 5명의 영스타 중에서도 가장 어리다.

자심은 2023-2024 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5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었다.

자심은 앞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3 AFC 20세 이하(U-20) 아시안컵에서도 활약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자심은 대회 8강에서 이란을 상대로 경기 종료 직전 결승 골을 터뜨렸고, 이라크를 4강으로 이끈 것과 동시에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출전권을 제 손으로 얻어냈다.

이어진 일본과의 4강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한 자심은 이라크가 개최국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U-20 아시안컵 준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



이강인과 박지성

자심은 지난해 10월 카타르를 상대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2003년생 우즈베키스탄의 미드필더 아보스베크 파이줄라예프(CSKA 모스크바)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2023 AFC U-20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결승골을 도와 우승을 견인하고 자신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파이줄라예프는 지난해 6월 중앙아시아축구협회(CAFA) 네이션스 컵에서 태지키스탄을 상대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다.

윤이나는 2022년 6월 열린 한국여자오픈 당시 골프 규칙을 위반해 대한골프협회와 KLPGA로부터 모두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윤이나에 대한 징계를 줄인 것은 골프 종목 특유의 스포츠맨십을

훼손한 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또 반대로 ‘1년 6개월 징계도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 박병호 기자

굿네이버스로
Good Neighbors-ro

& 굿네이버스

평범한 일상에서도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기로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로

오늘도 우리는,
굿네이버스로
향합니다.



골든글로브 안은 한국계 스티븐 연 “겨울왕국” 같은 순간” 감격

한국계 다수 참여한 ‘성난 사람들’ 미니시리즈 돌풍

한국계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원제 BEEF)이 미국 영화상 골든글로브 TV 미니시리즈 주요 상을 다수 쓸어간 가운데 수상자들의 소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성난 사람들’은 이날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아 3관왕에 올랐다.

주연을 맡은 배우 스티븐 연과 앤리 워은 아시아계 배우로는 처음으로 이 부문의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한국계 배우로는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은 스티븐 연은 이날 수상 소감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언급해 화제가 됐다.

그는 “정말 신기하다. 평소 내가 나에 대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고립과 분리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와서 이런 순간을 맞으니 그냥 다른 모든 이들을 생각하게 됐다”며 “‘겨울왕국’의 줄거리와도 같은 느낌이라는 것을 방금 깨달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美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받은 스티븐 연

엘사의 이야기를 자신과 비교한 스티븐 연은 수상 소감을 통해 “나는 그저 연민과 사랑, 보호와 선의를 받는 사람일 뿐”이라며 가족과 제작진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티븐 연은 다섯 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고, 대학 시절 심리학을 전공하다가 연기에 관심을 가져 배우의 길을 걸었다.

2010~2017년 좀비 장르 드라마 ‘워킹 데드’에 출연해 스타덤에 올랐고 봉준호

감독의 ‘옥자’(2017)와 이창동 감독의 ‘버닝’(2018) 등 한국 영화에도 출연했다.

스티븐 연은 올해 상반기 개봉 예정인 봉 감독의 신작 ‘미키 17’에도 나온다.

수상 후 인터뷰에서 봉 감독과의 두 번

째 작업에 대해 스티븐 연은 “봉 감독은 일할 때마다 더 놀라운 아티스트가 된다”며 “세계가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에 흥분된다”고 말했다.

‘성난 사람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난한 남자 대니(스티븐 연 분), 남편과 소

원해져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부잣집 여자 애리미(앨리 워)가 운전 중 서로 시비가 붙으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블랙 코미디 장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겸 감독 이성진이 연출·제작하고 극본도 직접 썼다. 주연 배우인 스티븐 연 외에도 조셉 리, 영 마지노, 데이비드 쇠 등 한국계 배우들이 조연으로 대거 참여했다.

이성진 감독은 ‘성난 사람들’에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온 경험을 녹였다.

그는 수상 소감으로 “우리 죠는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교통사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운전자에게 “선생님, 저는 앞으로 당신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농담을 던졌다.

이성진 감독은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스티븐 연과 앤리 워이 첫 아시아계 주연상을 수상한 데 대해 “놀랍다”며 “그들은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이고, 그들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 신진욱 기자



엑소 첸백시

첸백시, 독립 레이블 설립 SM 계약·엑소 활동은 유지

그룹 엑소의 백현이 본인과 시우민, 첸의 개별 활동을 위한 독립 레이블 ‘아이엔비100’을 설립했다.

아이엔비100은 8일 “백현이 독립 레이블을 설립하고 시우민, 첸과 함께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백현, 시우민, 첸의 개별 활동과 ‘첸백시’로서의 팀 활동은 ‘아이엔비100’에서, 엑소로서의 그룹 활동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은 유지되며 ‘첸백시’ 유닛과 멤버별 개인 활동은 아이엔비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엔비100은 “멤버들은 그룹 엑소를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변함없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도 이날 “첸, 백현, 시우민은 전속계약 하에 개인 활동에 한해 아티스트가 별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당사와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엑소는 8명 모

든 멤버가 함께 엑소로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첸, 백현, 시우민은 SM엔터테인먼트의 정산 자료 미제공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전속계약은 유지하게 됐지만, 백현은 그해 8월 개인 회사 설립 계획을 밝혔다.

아이엔비100은 향후 SM엔터테인먼트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개별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멤버들의 프로듀싱 및 제작 역량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이 종료된 멤버 디오와 관련, “디오 역시 엑소 활동을 함께 하는 부분에 동의했다”며 “향후 일정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디오는 작년 11월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돼 SM 출신 매니저가 설립한 신생 회사로 향했다.

/ 양순호 기자

민희진 “정형화된 스타일 깨고팠다”

NHK, 뉴진스 집중 조명

‘뉴진스 신드롬’을 일으킨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일본 방송에서 K팝 시장의 정형화된 스타일을 깨고 싶었다는 뒷얘기를 전했다.

일본 NHK는 지난 7일 다큐멘터리 ‘세계에 올리는 노래 - 일한(日韓) 팝스(POPS) 신시대’를 통해 그룹 뉴진스와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 대표를 집중 조명했다.

민 대표는 뉴진스의 탄생 배경에 대해 “기존에 있던 스타일보다는 메인 스트림에서 보이지 않았던 스타일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성을 지향하는 큰 시장에서는 히트 공식들을 손쉽게 리바이벌해서 모방이 나오고, 메인 스트림에서 먹히는



정형화된 스타일이 정해진다”며 “저는 그걸 좀 깨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즈니스를 위해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나이대에 어울리는 거리낌 없고 해맑은 모습이 나오기를 바랐다”며 “획일화되지 않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게 뉴진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 홍진희 기자

‘경성크리처’ 시즌2 올해 공개…“완전히 색다른 매력”

넷플릭스는 최근 시즌1을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 ‘경성크리처’의 두 번째 시즌을 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성크리처’ 시즌1은 1945년 광복을 앞둔 경성(서울)을 배경으로 일제가 생체실험을 통해 괴물(크리처)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다룬다.

박서준이 행방불명된 조선인 기생을 찾으러 생체실험이 자행되는 병원으로 잠입하는 장태상과, 한소희가 어머니를 찾아서 장태상과 함께 병원에 잠입하는 윤채옥을 연기했다.

10부작인 시즌1은 넷플릭스 순위에서 국내 1위를 비롯해 비영어권 글로벌 3위에 올랐다. 브라질,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등 69개국에서도 10위 안에 진입했다.



넷플릭스는 “시즌2는 2024년 서울을 배경으로 장태상과 모든 것이 닮은 인물 ‘호재’와 윤채옥이 만나 끝나지 않은 경성의 인연과 운명, 악연을 파헤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정동윤 감독은 “(시즌2는) 태상과 채옥의 운명과 앞으로의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며 “시즌2는 완전히 색다른 매력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 채수연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시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

지속가능한 “食”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기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KB금융그룹

GANGWON
2024YOUTH
OLYMPIC
GAMES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2024년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 제1사업권자로 선정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제1·2여객터미널 내 고객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은행 업무 및 환전은 물론, 여행자보험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 1위 KB국민은행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고객만족도 1등에 맞는 품격 있는 금융서비스로
고객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OPEN



* KB국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2개의 영업점과 11개의 환전소 및 15개의 ATM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